

지역 자산 · 문화 연결하는 대학의 모델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 개소식... 글로벌대학30 사업 일환 남원 서남대 폐교 부지 재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일 전주캠퍼스 내에 '남원글로벌캠퍼스 관리본부'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윤명숙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장(대외취업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와 이성호 남원부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일환으로 남원 서남대 옛 부지를 유학생 전용 캠퍼스로 재생해 왔다. 그 결과 내년부터 글로벌커머스학과(정원 100명), 한국어학과(80명), K-엔터테인먼트학과(70명) 등 3개 학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특히 남원글로벌캠퍼스를 단순한 유학생 유치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남원글로벌캠퍼스 관리본부'는 유학생 학사 지도, 생활



2일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내에 '남원글로벌캠퍼스관리본부'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이성호 남원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지원, 행정 운영 등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글로벌캠퍼스는 단순한 유학생 유치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과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대학의 모델로 만들겠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수업에 대한 고민 · 해법, 책 속에 담겼다

‘중등 수업 설계 및 운영의 실제’ 발간... 군산중앙여고 이태현 수석교사 대표저자로 참여

전국의 수석교사들이 뜻을 모아 '중등 수업 설계 및 운영의 실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교육 일선에서 수업혁신에 매진해 온 전국 9명의 수석교사들이 참여해 효과적인 수업설계와 수업 운영에 대한 '십인십색(十人十色)'의 다채로운 노하우를 담아냈다.

전북에서는 군산중앙여고 이태현 수석교사가 대표저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었다. 첫 파트는 중등 수업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이론을, 두 번째 파트는 중등 수업 설계 및 운영의 실재를 다루고 있다.

먼저 파트 1 이론 파트는 좋은 수업에 대한 성찰로 출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수업 설계의 원리와 접근



△수업 운영의 실제 △학습자 중심

의 수업을 위한 전략 △거시적 수업 과정 변화에 따른 수업 트렌드 △수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의 성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석님의 꿀팁'을 넣어 수업에 적극 개입해 현장 지원의 정점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파트 2는 교과별 수업 설계와 운영 과정을 마치 동영상상 보듯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수업 고민을 Q&A 형식으로 풀어 교사들의 수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태현 수석교사는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수석교사들이 애정어린 조언을 담아 만든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좋은 수업을 고민하는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들에게 수업설계를 위한 훌륭한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남권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6일 전주비전대에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오는 6일 드림관 2층 비전컨벤션홀에서 '2026학년도 호남권(전북)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박람회에는 전주비전대를 비롯해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동강대, 목포과학대, 군장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북과학대, 전남과학대, 조선간호대, 전주기전대, 청안대, 제주관광대 등 호남·제주권 주요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이에 각 대학의 교수와 입학 담당자들이 상담 부스에 상주, 방문한 학생·학부모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과 특성과 입시전형, 진로 전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대)은 9월 한 달간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책이 물들이는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강연, 공연, 행사, 전시, 체험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연으로 '편지씨툰' 엄유진 작가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엄성우 교수가 함께하는 북토크 '가족이란 이름의 우주정거장'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실 뚝방과 '도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가 '내 삶을 바꾸는 글쓰기와 말하기' 특강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이해정 소장의 학부모 대상 강연 등 총 6개의 다채로운 강연이 준비됐다.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공연으로는 오는 13일 가족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가 두 차례 진행된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이용자가 누리집 게시판에 직접 인증샷을 올리는 '아침독서 챌린지'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그림 속 한마디' 행사는 아트프린트 원화전시를 보고 책 속의 대사를 상상해 글로 써보는 것으로, 최대 참여자 10명을 선정해 독서용품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원화전시를, 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아트프린트 전시를 한다.

/장은성 기자

‘2025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 7개월간 대장정 끝

국내 10개 대학 등 참여
16개 국제 연합팀 구성
전북대-인도네시아팀
노동자 안전 보조기 '대상'



'2025 글로벌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i-CAPS)'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충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동 주관한 선도적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2013년 시작 이후 올해까지 1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Innovation meets Tradition'을 주제로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인천에서 열린 '제24차 디자인 캠프'를 통해 최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10개 대학과 해외 7개 대학에서 총 86명의 학생이 16개 국제 연합팀을 구성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첫 캠프를 통해 팀 빌딩과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의 공동 연구·제작을 이어왔다.

이에 학생들은 7개월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작품 활동을 진행, 5월과 7월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중간 보고회에도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열린 2차 캠프에서는 최종발표 및 평가가 이뤄졌다. 팀별로 각 나라에서 제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작품을 완성했다.

전북대-인도네시아 연합팀 'SamNira'가 '뽐수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하체 보조기'를 선보여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충남대-싱가포르 연합팀 T.A.M.I, 은상은 전북대-싱가포르 연합팀 Air bnBE와 제주대-인도네시아 연합팀 Mendjamoo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재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i-CAPS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학 차원의 국제적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국제개발협력 특강 · 강좌 2학기에 운영

전북대학교 국제처 소속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백승희)는 2016년부터 전북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계시민교육을 올해부터 '국제개발협력' 특강으로 개편, 상반기에만 2,478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문화다양성, 인권과 난민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특강은 2학기에

도 운영된다.

또한 전북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과 ODA' 일반선택 강좌가 2학기에 개설된다. 2017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462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과 최신 국제 동향을 학습해왔다.

이번 학기에는 KOICA 최초의 여성 이사 출신인 백승희 센터장이 책임교

수를 맡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ODA 홍보단(ODA水)', '개발협력 동아리(ODA利)', '개발협력 세미나 시리즈(인디코드)'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희 센터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지역민이 ODA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북이 세계로 뻗어가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이 2일 제35보병사단 대강당에서 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야구를 통해 본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야구를 통해 본 리더십’

박노준 우석대 총장, 35사단서 특강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이 2일 제35보병사단 대강당에서 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야구를 통해 본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박 총장은 야구선수 수와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구를 매개로 한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과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강연 초반에는 커브와 포크, 싱커, 슬라이더 등 다양한 투구법과 함께 기업이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는 이유와 우승을 위한 전략, 감독의 역할 등 야구의 기본 개념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풀어내며 장병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리더십에서 현대적 리더십으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칭찬과 배려, 긍정적 사고를 유도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소개하며,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진정하는 리더는 적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며, 제갈량과 탈레랑 등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들어 리더의 자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강연 말미에는 김성근·김응용·김인식 등 한국 야구계의 명장들과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감독 마이클 매시나의 '8가지 리더십 매뉴얼'을 언급하며,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자신감과 팀워크, 신념, 겸손 등을 제시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5개 시군,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선정

순창·정읍·김제·장수·고창 등... 균형 있는 학습 기회 제공

전북 지역 5개 시군이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순창,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등 도내 5개 지역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개별 학습이 가능한 독서실과 모둠 활동을 위한 회의실,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이는 학원이나 민간 스터디카페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상호 협력해 지역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학습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습의지와 소득수준, 학교장의 추천 등을 고려해 선발된 중·고등학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주도 학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나섰다

그림일기 등 분야...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환경보호 실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급식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모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캠페인 사진(초·중·고생), 숏폼(초·중·고생), 이모티콘(초·중·고생, 교직원) 등 5개 분야다.

공모 주제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급식'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인성급식'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 '안전급식' △미래와 세계를 향한 '창의급식'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 학교급식팀) 또는 이메일(guswis1261@jedu.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이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교육 차원의 식생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